

<글말교실 소감문>

“아니, 자네는 논리 있게 글을 잘 쓰는 군. 논문을 써야겠어.” 이런 말을 듣는 것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빠르게 글을 써내려 갔다.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는데, 그게 글을 잘 쓰는 것과는 별개인 것을 알면서도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곤 했다. 이번에도 그랬다. 교양과목의 과제로 현대미술과 대중문화에 대해 쓰기로 했는데, 공부를 조금 하고 나니 일사천리로 써내려 갈 수 있었다. 그대로 과제를 제출하려던 찰나, 해당 수업의 교수님께서 ‘글말교실 1:1 코칭’을 소개해 주셨다. 온라인 수업인 만큼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어려울 테고, 혼자 글을 쓰는 것이 막막할 수 있으니 한 번 신청해 보라는 것이었다. 지난 2년간의 온라인 수업과 술한 대체 과제들을 떠올려 봤다. A+이라 확신했던 글이 대체 왜 B를 받았는지 납득할 만한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었나? 없었다. 어쩌면 글말교실은 아주 오랜만에 내 글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?

글말교실에 대해 가장 좋았던 점은 줌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. 나같은 내향형 인간들에게 교수님과 1:1 면담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? 줌과 이메일 중 선택할 수 있다는 말에 나는 글을 메일로 보냈고, 이틀도 채 되지 않아 답변을 받았다. 피드백 받은 글을 열어봤을 때는 조금 충격이었다. 근자감을 가지고 쓴 글에 그렇게나 많은 빨간 글씨들이 달렸으니 말이다. 하지만 읽어보니 왜 그렇게 양이 많았는지 바로 이해되었다. 교수님께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세세하게 알려 주셨다. 새내기 때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 배워 놓고도 시간이 지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, 글말교실은 아주 기초적인 글의 형식들부터 상기시켜 주었다. 더 나아가 글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. 비판적인 글을 쓰다 보면 방향을 잃기가 쉽다. 나 역시 어느 새인가 너무 편향적인 글을 쓰고 있었다. 교수님께선 어떤 부분이 지나치게 일반화되었는지 꼬집어 주셨고, 어느 부분에 사례를 넣으면 더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조언해 주셨다. 비판적이되 치우치지 않은 글을 쓸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셨고, 덕분에 내 글은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.

글말교실이 무조건 줌으로 이뤄졌다면 아마 난 절대 신청하지 못했을 것이다. 직접 만나 빈 적 없는 교수님과 줌으로 면담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. 이는 비단 나만 그런 것이 아닐 테니 이후 글말교실이 다시 열릴 때, 운영 공지에 ‘비대면 원고 첨삭’이 이메일로 이뤄지는 것임을 강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. 또 내가 글말교실의 운영 공지만 보고 교수님을 통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, 어떤 글을 첨삭 받을 수 있는지, 과제 제출을 위한 글도 첨삭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궁금해했을 것 같다. 이런 설명까지 자세하게 들어가 있다면 향후 학생들이 글말교실에 더 쉽게 참여할 것 같다. 마지막으로 내가 수강하던 수업의 교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수업의 교수님들도 학생들에게 참여를 권유해 주신다면 더 효과적인 홍보가 될 것 같다. 글말교실은 내가 글을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. 누구에게든지 권유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.